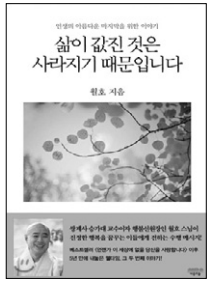


언젠가 사라질 존재 자각...한뼘 성장 시켜



살이 깊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4천원

살이 버겁고 힘들어 지친 이들을 위해 월호 스님이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책 《살이 깊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를 펴냈다.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이자 불교TV 진행자였던 월호 스님은 2007년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고 완전연소하는 삶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다. 죽음에 대한 스님의 새로운 통찰에 독자들은 환호했고, 그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죽음 열풍’을 일으켰다. 이 책은 바로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불안’이라는 손님 떠나보내라
스님은 인연의 끈은 지금 잡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고 충고한다. 그리고 내일을 기억하기보다 오늘 저녁을 함께하라고 권한다. 또한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의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모두 주인이 아니라 손님에 불과합니다. 손님을 보내 버리

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의 담벼락을 관찰하면 마음이 아무 대도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월호 스님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안심은 자생적 안심이라고 말한다. 즉 스스로 터득하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스님은 죽음을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용어에 빗대어 설명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언젠가 그의 생이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스님은 이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잊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한 뼘 성장할 수 있다.” 진정으로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채움은 나눔에서 시작
그렇기에 월호 스님은 잠시 왔다 가는 생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나눔이라는 역설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마음 안정 위해 자신을 채워야
생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삶
온전한 생 위해 ‘나눔’ 필요**

것을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풀어놓는다. 스님이 불교TV와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을 때의 이야기다. 한 노년의 남자가 월호 스님을 찾아왔다. 이복서 태어난 그는 여섯 살에 6.25전쟁이 일어나자 월남해 편모슬하에 자라다가 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홀로 세상에 버려졌다고 했다. 폐품 수집서부터 구두닦이, 신문팔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약삭같이 돈을 벌며 지금은 빌딩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었다.
쓰지 않고 모으는 것만이 기쁨이자 보람이고 취미였던 79세의 노인. 월호 스님에게 찾

아는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죽기 하루 전날도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며 더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놓지 않고 죽은 그 노인을 위해 자식들이 동상을 세워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그 건물 앞을 지나다 동상 앞에 누군가 써놓은 글을 보았다. ‘빈 손’.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모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약삭같이 모으며 살던 노인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전하며 스님은 말한다. “큰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겨놓고 나서, 오늘은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옷 한 벌만 걸쳐도 비 할까 집 하나만 있어도 벌써 본전은 쟁겼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배짱을 갖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자신이 겪은 수행의 시간을 통해, 또 불교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며 만난 수많은 사연을 통해 저자가 느낀 삶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해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일상을 힐링하게 하는게 바로 ‘힐링’의 출발”

식발하는날

현진 스님 지음 | 담엔북스 펴냄 | 1만3800원



《산문 치인 리 십번지》
《썸있는 스님 이야기》
《두번째 출가》부터 최근 몇 년간의 책 《살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오늘이 전부터) (변뇌를 꺼안아라)까지, 굳이 더 없는 문장으로 절정의 소소한 일상과 철학을 풀어나가 두꺼운 팬층을 둔 현진 스님의 첫 책은 《식발하는 날》이다.



느끼는 그 시원함과 허탈함의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다. 정말 그랬을까 할 만큼 치열한 용맹정진과 수행 이야기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젊은 수행자의 구도 심리를 읽는다.
제 4장 ‘혼자 하는 식발’ 편에서는 수행 중 느낀 여러 감상들과 절정의 차 생활에 관한 글들이 주를 이룬다. 일중에 스님의 수행일지가 되는 셈인데, 이는 저자의 수행 이력과 동시에 일 년 이상 연재했다고 한다. 그 일이 스님에게는 일종의 문단 데뷔가 된 셈이었는데, 그 인연으로 처음 엮어 낸 책이 바로 《식발하는 날》 초판이다.
이번에 재출간한 이 책에는 20년 전에 펴낸 그때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절집 및 선방의 이야기들을 잔잔히 소개했다. 오래된 문투로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몇 바꾸고 조금 지루한 문장은 가볍게 첨삭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글 사이의 행간 읽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흥미롭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무척 아끼고 자랑스러워한다. 첫 수필집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뜻밖의 수행의 이야기들을 여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야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를 열고 또 많은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절집 생활이며 하루 수행이며 선방 정진을 직접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식발하는 날》이 처음 출간될 때만 해도 산중의 절집 이야기는 알려진 바가 적었다. 책은 절집과 선방에서의 잔잔한 일상을 다섯 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젊은 구도자의 수행담에 일상의 번민과 갈등이 현진 스님 특유의 필력으로 잘 녹아들어 있어 행간을 읽는 재미가 녹록지 않다.
제 1장 ‘한철 정진 잡합시다’ 편에서는 선방서 초참(初參)을 지내던 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선방’이란 말이 낯설 수 있듯 한철 정진과 방부 들이는 일, 소임 이야기, 치열한 용맹정진 이야기, 그리고 해제날에

**오래된 문투 고쳐 재출간
절집과 선방 일상 소개**

행자의 모습, 꼭 그대로 닮고 싶은 노스님의 모습, 웃음과 깨침을 동시에 얻는 여전한 우리에게 흥미롭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무척 아끼고 자랑스러워한다. 첫 수필집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뜻밖의 수행의 이야기들을 여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이야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를 열고 또 많은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절집 생활이며 하루 수행이며 선방 정진을 직접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식발하는 날》이 처음 출간될 때만 해도 산중의 절집 이야기는 알려진 바가 적었다. 책은 절집과 선방에서의 잔잔한 일상을 다섯 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젊은 구도자의 수행담에 일상의 번민과 갈등이 현진 스님 특유의 필력으로 잘 녹아들어 있어 행간을 읽는 재미가 녹록지 않다.
제 1장 ‘한철 정진 잡합시다’ 편에서는 선방서 초참(初參)을 지내던 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선방’이란 말이 낯설 수 있듯 한철 정진과 방부 들이는 일, 소임 이야기, 치열한 용맹정진 이야기, 그리고 해제날에

▲저자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동안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절정의 소소한 일상과 불교의 이해와 교훈들을 독자들에게 꾸준히 전달해 왔다. 현재 충북 청원 마야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썸있는 스님이야기》 《산문, 치인리 십번지》 《두번째 출가》 《오늘이 전부터》 《살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언젠가는 지나간다》 《변뇌를 꺼안아라》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요가와 상카학과 사상 집중 분석

요가 상카 철학의 이해

문음식 지음 | 여러 펴냄 | 1만6천원



인도의 여섯 철학파 중 하나로서 요가학과 상카학파는 서로 연계 학파이다. 특히 상카학파는 비록 지금은 살아있는 전통으로 존속하지는 않으나 요가학과를 비롯해 다른 학파의 종교적 철학적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상카사상에 대한 이해는 힌두의 타종교와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더욱이 이 상카학파는 단순히 의도사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해버릴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불교 철학과 긴밀한 관련을 가졌던 학파이기도 하다. 하나는 바이제시가 학파에 속하는 승중심주의론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저자 미상의 주석과 더불어 수론송의 한역본인 금칠십론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문음식 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이에 대해 “힌두의 타종교 이해에 필수적 사상”이라며 고대의 상카철학에 관한 최초 기술서로 마명(馬鳴)의 《불소행찬(佛所行讚)》을 꼽는다.
이 책은 요가와 상카학파의 성립 배경과 사상을 집중 분석해 요가 수프라와 그의 주석서에다가 《금칠십론》을 곁들였다. 부록에서는 요가 수프라의 산스크리트 원문과 한글 번역을 같이 실었으며, 상카 까리까는 산스크리트 원문과 한글 번역 옆에 주석 부분을 진제스님이 한역했던 한문을 원문 그대로 편성했다.
이 책은 제 1장서 6장까지 요가 철학을, 나머지는 상카 철학 부분을 다루고 있다. 1장 요가 사상의 기원, 2장 요가 철학의 기본적 이해에서는 요가 수프라와 그의 주석서들의 구성과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약술했다. 이어 3장은 요가 철학에서의 요가수행 원리와 단계별 관계를 다뤘다. 요가수행의 단계와 마음과의 작용 관계를 통해 요가에서 말하는 삼매의 종류와 의미를 진다했다.
마지막 8장은 70여 송으로 구성된 《상카 까리까》의 저술 배경과 성립을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인지과학의 다양한 성과 정리

현상학적 마음

손 겔러거, 단 자하비 지음 | 박인성 옮김
도서출판비림 | 2만8천원



책 《현상학적 마음: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입문》은 손 겔러거·단 자하비의 《THE PHENOMENOLOGICAL MIND: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ve science(2008)》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도서출판 비림에서 《마음학 총서》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이 기획과 번역은 동국대 불교대학의 박인성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 《현상학적 마음》은 세계 현상학과 인지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다. 인지과학의 다양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그간의 인지과학의 성과를 한 눈에 보고자 하는 분들, 또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을 것이다. 이 책은 현상학적 환원이나 형상적 변경 같은 현상학의 방법론들, 의식과 자기의식, 시간, 지각, 지향성, 신체화된 마음, 행위와 행위제, 타자 인지, 자기와 인격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를 인지과학의 다양한 성과들을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현상학을 비롯한 철학 쪽에서 보면, 철학은 자신이 위빠사나의 활동이자 산물이면서, 그 위빠사나가 사마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사마디에 의존하면서 더 정제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욕정이나 증오 같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들이 다른 마음 상태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번뇌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불교의 사마디 방법을 통해서 철학이 사마디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이 번뇌들이 일어나는 과정과 제거되는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윤리학이 윤리학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예뵈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영숙)

수정기공 특강 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간의 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웁은 불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40×80cm 160g 30수 5,000원
참회진언 타올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냄새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환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스트레칭필, 칼라차크라, 용천보탑, 배요내대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